

빅3 vs 다크호스

문학치프·돌콩·청담도끼 재대결
부경소속 투데이·백문백담 복병



한국 경주마 빅3가 서울 경마공원에서 6일 열리는 제35회 KRA컵 클래식에서 재대결한다. 국제경주 코리아컵 우승마 '문학치프'(사진)와 준우승한 '청담도끼', 인기마 '돌콩'이 모두 출전해 2000m 경주를 펼친다.

한국 경주마 '빅3'가 재대결을 펼친다. 한국마사회(회장 김낙순) 서울 경마공원에서 6일 제9경주로 열리는 제35회 KRA컵 클래식에 국제경주 코리아컵 우승마 '문학치프'와 준우승한 '청담도끼', 인기마 '돌콩'이 모두 출전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00m 경주로 총상금 5억원이 걸려있으며, 3세 이상이라면 성별과 산지, 소속 경마장 모두 상관없이 출전 가능해 진정한 장거리 강자를 가린다.

●[서울] 문학치프(수, 4세, 미국, 레이팅 131, 권경자 마주, 김순근 조교사, 승률 52.6%)

장거리 강자를 가리는 스테이머 시리즈의 올해 최우수마로, 무서운 상승세를 보이는 장거리 적성마다. 9월 8일 시행된 코리아컵에서 한국 경주마 첫 우승의 영광을 차지했다. 레이팅이 현재 한국 경주마 중 가장 높은 131이다.

●[서울] 돌콩(수, 5세, 미국, 레이팅 129, 이태인 마주, 배대선 조교사, 승률 53.8%)

올해 초 세계 4대 경마대회 두바이 월드컵 결승에 진출하며 한국 경마를 세계에 알렸다. 코리아컵에서 한국을 대표할 우승후보로 손 꼽혔으나 추입 전략에 실패하며 5위에 머물렀다. 6월 부산광역시 장배에서는 '문학치프'를 상대로 3/4마

신의 우승을 차지한 바 있다.

●[서울] 청담도끼(거, 5세, 미국, 레이팅 129, 김병진 마주, 리카디 조교사, 승률 54.2%)

지난해 KRA컵 클래식에서 우승하며 장거리 대상경주 3연승을 이룬 정도로 전성기를 보냈다. 올해 연이어서 중하위

권에 머물며 다소 부진을 겪었으나, 코리아컵 준우승으로 부활의 신호탄을 올렸다. 2000m가 적성거리로 8번 출전해 1번 빼고 모두 우승했다.

●[부경] 투데이(거, 5세, 한국, 레이팅 126, 고정수 마주, 김영관 조교사, 승률 61.1%)

레이팅이 부경 경마에서 2번째로 높은 정도로 실력마이나, 서울 원정 경주에서는 무승으로 활약이 다소 아쉽다. 주로 단거리에서 활약해왔으나 장거리로 전략 변경이 유효할지 관심이 모인다. 9월 8일 단거리 국제경주 코리아 스프린트에 출전해 16두 중 11위에 머물렀다.

●[부경] 백문백담(거, 4세, 미국, 레이팅 115, 유연욱 마주, 김영관 조교사, 승률 30.0%)

코리아컵에서 부경 소속 출전마 중엔 최고 성적인 7위를 달성했다. 단·장거리에 상관없이 기복 없는 성적을 내고 있으나, 서울 원정 경주에 2번 도전해 모두 하위권에 머물렀다. 서울 경주로 적응 여부가 승부의 관건이다.

정용운 기자 sadzoo@donga.com

렌즈 속에 말을 담아봐

마사회, 31일까지 말사진 공모전

한국마사회(회장 김낙순)가 말사진 공모전 '말(馬) 그리고 휴식' 참가작품을 10월 31일까지 접수한다. 말산업 확대와 힐링승마 등 현대 말 문화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반영하기 위해 9년 만에 재개된 이번 말사진 공모전은 말을 소재로 한 2017년 1월 이후 촬영 작품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접수는 공모전 홈페이지(www.horsephoto.co.kr)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심사항목은 주제전달, 심미성, 창의성이 각 30점이고 활용성은 10점이며, 내부 및 외부 심사위원들로 구성된 1, 2차 심사에 의해 총 42점의 수상작이 결정된다. 대상(1명) 500만 원, 금상(1명) 300만 원, 은상(2명) 100만 원 등의 상금이 수여된다.

입상작은 11월 중순에 최종 발표될 예정이며, 연말 서울 경마공원 말박물관 기획전시를 시작으로 2020년에는 전국에 분포된 한국마사회 지방 경마장과 지사 등에서 순회전시도 계획 중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말사진 공모전 사무국(02-334-7542, 토·일 휴무)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낙순 한국마사회장은 "활영을 위해 빌딩숲을 떠나 목장이나 승마장을 찾는 것만으로도 힐링의 시간이 될 것이다. 서정적이고 평화로운 말의 모습을 렌즈에 담고 그 멋진 작품을 공유, 감상함으로써 인식 전환의 계기를 만들고자 공모전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용운 기자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경마계에 부는 동물복지 바람...말복지위원회 '시동'

전문가 11명...말 학대 방지 등 자문
김낙순 회장 "동물복지 선진화 앞장"

한국마사회(회장 김낙순)는 말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며 국내 말산업의 동물복지 선진화를 위해 적극적인 실천에 나섰다. 말복지위원회는 한국마사회가 기존에 운영하던 말보건복지위원회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 동물 존중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 의지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8월 신설한 기구다.

한국마사회는 2014년 내부 위원들로 구성된 말보건복지위원회를 설치하고 말복

지 6대 기본원칙 제정, 각종 말 관리 가이드라인 제시 등을 시행해왔다. 하지만, 보다 전문적인 자문기구로 발돋움시키기 위해 규모를 확대하고 이름을 말복지위원회로 변경했다. 구성원으로 외부 전문가와 경마유관단체들을 추가하고, 한국마사회 말산업육성본부장이 위원장을 맡았다.

말복지위원회에는 말·특수동물학과 교수, 동물복지·동물행동학 전문 수의사, 대한공중방역수의사협회의 자문 변호사, 서울마주협회, 서울조교사협회, 한국경마기수협회 관계자 등 학계, 법조계, 연구소, 경마관계자와 한국마사회 임직원까지 총 11명이 활동한다. 주요 업무는 말보건, 복지

주요 정책 및 제도, 말 학대 방지와 구조 및 보호에 대한 자문이다. 말(馬)을 단순한 도구로 객체화하지 않고, 동물복지 측면에서 사람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최근 해외 경마시행체들이 경주마 복지를 강화하고 있다. 영국의 경마시행체(BHA)는 2017~2019년 9대 전략 목표 중 '말복지 리더십'을 1순위로 선정하고 내·외부 관계자 8인으로 구성된 '말복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9월 27일 열린 제1차 말복지위원회 회의에서는 신규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운영 방안과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최근 동물복지와 관련된 이슈들을 공유하

고, 말 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유관 기관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확인했다. 또한, 말복지 가이드라인 수립에 관련된 다양한 의견이 오고갔다. 한국마사회는 말복지위원회의 검토와 자문을 거쳐 11월 말복지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태웅 한국마사회 말산업육성본부장은 "90년대부터 채택 관련 규정을 강화하는 등 노력해왔지만 앞으로는 학대 예방을 넘어 선도적인 차원에서 말 복지 증진을 위한 고민을 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김낙순 한국마사회장은 "말산업의 발전에 있어 동물복지가 빠져서는 안 되는 중요한 가치"라며, "한국마사회는 국내 유일 경마시행체이자 말산업육성전담기관으로서 국내 말산업의 동물복지 선진화를 도모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용운 기자



남자프로농구 5일 개막...스포츠토토와 함께 응원해요

농구토토 스페셜 18·19회차 발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인 케이토토(www.ktoto.co.kr)가 5일 펼쳐지는 국내 남자프로농구 개막전을 시작으로 농구토토 스페셜 18회차와 19회차를 연속해서 발매한다.

국내프로농구 KBL이나 국제대회 등을 대상으로 발매하고 있는 농구토토 스페셜 게임은 지정된 2경기(더블) 및 3경기(트리플)의 최종 득점대를 맞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득점대는 69점 이하, 70~79점, 80~

89점, 90~99점, 100~109점, 110점 이상 등 총 6개 항목으로 구성되며, 최소 100원부터 최대 1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스페셜 18회차의 대상경기는 5일 오후 3시에 울산동천체육관에서 열리는 울산 현대모비스-인천 전자랜드(1경기)전을 비롯해, 같은 시간 전주실내체육관에서 벌어지는 전주 KCC-서울 SK(2경기)전, 그리고 오후 5시에 시작하는 창원 LG-서울 삼성(3경기)전이 선정됐다. 첫 번째 경기 시작 10분전인 5일 오후 2시50분까지 참여가 가능하다. 이어지는 19회차는 6일 오후 3시에 벌어지는 부산 KT-서울 SK(1경기)전과

원주종합체육관에서 열리는 원주 DB-전주 KCC(2경기)전, 그리고 인천 전자랜드-서울 삼성(3경기)전으로 농구팬을 찾아간다.

케이토토 관계자는 "새 시즌 프로농구와 함께 농구토토 스페셜이 농구팬 곁을 찾아간다. 새로운 시즌을 맞아 바뀐 전력과 새로운 선수 등을 정확히 분석한다면, 적중이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농구토토 스페셜 게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케이토토 홈페이지(www.ktoto.co.kr) 및 공식온라인 발매사이트 베타맨(www.betman.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토토 공식 페이스북, 탁구 꿈나무 응원 이벤트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인 케이토토(www.ktoto.co.kr)가 공식 페이스북(www.facebook.com/sportstoto.toto.p)을 통해, 공익 캠페인 'ready To Tomorrow-탁구 꿈나무편'의 응원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번 캠페인은 소외되고 열악한 환경에서도 국가대표의 꿈을 키워가고 있는 미래의 대한민국 탁구 꿈나무들에게 후

원 물품 지원과 함께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기획된 공익 활동의 일환이다.

공익 캠페인을 널리 알리고 자라나는 탁구 꿈나무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 진행되는 이번 이벤트는 스포츠토토 공식 페이스북에 방문해 캠페인 영상을 시청한 후 친구들에게 해당 영상을 전달하고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기원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작성하면 참여가 완료된다.

이벤트 기간은 이달 31일까지다. 당첨자는 다음달 6일에 공식 발표된다.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선정된 사람에게는 대한탁구협회 이승민 회장의 친필 싸인이 담긴 탁구라켓(10명)과 아메리카노 모바일 교환권(100명)을 증정한다.

케이토토 관계자는 "대한민국 탁구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꿈나무들을 응원하기 위해 기획된 이번 이벤트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 스포츠팬들의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가 아이들에게는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스포츠토토 캠퍼스 건전화 캠페인 '후끈'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인 케이토토(www.ktoto.co.kr)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남부센터 및 북부센터와 함께 지난 달 26일과 27일 양일에 걸쳐 실시한 '2019 스포츠토토 캠퍼스 건전화 캠페인'이 뜨거운 호응 속에 마무리 됐다.

동작구 혁신동에 위치한 중앙대학교와 마포구 대흥동의 서강대학교에서 열린 이번 캠페인의 경우, 캠퍼스 내에서 학생들에게 불법 스포츠도박 근절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도박 중독에 대한 폐해를 널리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대학교의 축제 기간을 이용해 학생들이 쉽고 간단하게 참여할 수 있는 게임과 함께 다양한 경품을 준비한 이번 캠페인에는 이를 통한 약 5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참여하는 등 뜨거운 관심을 이어졌다.

케이토토와 불법도박 근절과 중독 예방에 힘쓰고 있는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북부센터와 남부센터에서도 이번 캠페인에 함께 참여해 건전한 캠퍼스 문화 조성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는 학생들에게 도박중독 선별검사(CPGI) 및 현장 상담을 통해 도박 중독에 대한 정의와 예방책 등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고, 각종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케이토토 관계자는 "최근 무분별하게 퍼지고 있는 불법도박에 대한 근절 등 건전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캠페인은 대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다. 건전한 스포츠 문화 조성을 위해 함께 해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도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말했다.